



기술경쟁력의 현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정일섭
ichung@skku.ac.kr

국가나 개인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용어가 경쟁력이 아닐까? 반전운동의 물결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 영국 연합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 전쟁의 명분이나 정치적, 인류애적인 측면을 접어두고 단순하게 기술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아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이 기술전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0년 전의 걸프전 보다 전쟁 기술력은 더욱 발전했고 승패에 대한 결정력도 훨씬 커지고 있음을 볼 때,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은 기술력을 민족적 단결이나 응집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은 한계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술이라는 총체적 힘이 얼마나 중요한 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술력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

지금 우리는 기술중시와 기술천시 풍조가 공존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권력기관이나 산업체는 한 목소리로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 누구나 기술이 국가의 장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공대나 자연계는 인기가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 안정성 결여를 동거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미국 유학시절 연구실 선배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화제가 되었고 예기치 않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 대학 교수인 선배 부인은 아들을 아 빠같이 공대로 진학을 시키려고 일치감치 준비해 왔지만 남편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연구 project, SCI 논문 등에 신경 쓰며 인생을 즐길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환멸을 느껴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빨라서

과거 10년 전에 공부한 내용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전달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즉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안식과 여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대립되는 형태이다. 공대 교수의 아들이 이럴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의대를 선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실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의대에 최고의 인재가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의대의 학문이나 기술이 공대나 자연계 대학 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창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최고의 인재들을 독점하는 현재의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껏 우리는 앞서 개발된 기술을 이해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통신 등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쟁력 덕분에 한국을 모르던 외국 국민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류"라는 문화적 열풍도 가능하게 했으며 학회에서도 한국의 발표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현재 위상에 기술경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문화일보 기사에서 주장한 진정한 애국자론이 마음에 절실히 와 닿는다. 우리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는 기술 개발을 주도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외화를 버는 첨단 산업의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

는 것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중이 있는 활동이 가능해졌고 국력을 키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애국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애국자에 걸맞는 대접이 없다면 이들은 후학들이나 자식들에게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본질이 그들의 역할과 그에 상응한 보답과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들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접받을 때 기술 경쟁력이 유지되고 나아가 새로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남이 개발한 기술을 따라 잡는 형태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기술개발 시대에는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의 우수 기업들은 향후 주력 제품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하고 있지만 창의력의 뒷받침이 없는 답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미래 한국의 주인공들이 이공계를 멀리하고 의대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창의력을 책임질 세대가 멀어진다는 현실은 국가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창의력을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중시정책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함으로써 타개할 수 있다. 기술을 중시하지는 의견을 많은 형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파격적일 때 그 효용성이 클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파격적인 기술정책을 기대하며...

